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융 복합적 영향

박미화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Convergenc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atient Safety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Mi Hwa Park

Dep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융 복합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S지역 소재 2개 대학의 4학년 학생 172명이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3.76점으로 중간 정도이었다.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간호학과 지원동기의 '주변권유'와 학업성적, 전공만족, 간호전문직관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7.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과 지원동기, 학업성적,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있는 변수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환자안전,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 태도, 융 복합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onvergenc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atient safety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72 senior nursing students in S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5 to May 25, 2017.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version 23.0. Nursing students showed 3.76, moderate level in patient safety attitud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tient safety attitude. The variables tha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atient safety attitude were 'recommendation' among motivation of admission, academic score,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nursing professionalism. These factors explained 17.8% of variance. In conclusion, to improve the patient safety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 management for developing motivation of admission, academic score,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atient Safety,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atient Safety Attitude, Convergence

* 본 논문은 2017년 청암대학교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4 September 2017, Revised 24 October 2017
Accepted 20 November 2017, Published 28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Mi Hwa Park
(Dep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Email: diamon86@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관인증제가 도입되고 의료서비스가 의료소비자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은 점차로 증가해 왔고, 더불어 환자 안전은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 오늘날 의료기관 인증제는 구조적인 영역 보다는 수행과정에 중점을 둔 조사로서 환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질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개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1,2]. 환자 안전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예방하고 상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는 활동이며, 안전문화를 형성하여 안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대상자중심의 의료체계를 의미한다[3]. 보건의료 전문인력인 간호사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안전 관련 문제점을 면밀히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식이 중요하다[4,5]. 더불어,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실무를 수행하고 환자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간호대학생들의 환자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습득은 추후 의료현장의 환자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6].

간호전문직관은 직업으로서 간호에 대한 견해와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견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신념과 관념이다[7]. 이는 간호의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므로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8]. 또한 전문직 실무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의사결정과 연관이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이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져가는 보건의료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과 깊음의 관련이 있다[9]. 그러므로 간호전문직관은 환자의 요구를 최우선 가치로 가진 의료제공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요소이다. 또한 간호사 개인의 신념 및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인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환자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간호사 개인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을 높일 수 있다[10,11].

비판적 사고성향은 환자 상태에 대한 주의 깊고 정확

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는 능력으로 임상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능숙하고 다차원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다[12]. 비판적사고 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13], 환자안전역량이 높고 정확한 간호지식을 바탕으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개별적인 간호제공을 위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이 높다[14,15]. 이러한 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능력 향상은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16] 간호사가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13]. 이와 같이 보건의료 전문직인 간호업무에 있어서 간호사의 정확한 환자 문제 파악,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활용 능력은 간호 실무에서 질적인 안전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안전 보장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연구는 환자 안전문화 인식[3,5,9,10,11,17,18], 환자 안전태도[15,18,19,20,21,22], 환자 안전관리 역량[14,15,21,22], 환자 안전관리 활동[17,18,19,20,22,23,21,24,25]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이 간호사에 대한 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은 병원 현장지도자의 지도하에 임상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감독 하에 환자의 접점에서 수행되는 기본간호에 참여하게 되며, 환자와의 상담 및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은 이론 수업 및 교내 실습, 임상 실습지도 등의 교육과정에서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은 임상경험이 없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26]. 환자 안전사고 발생의 큰 요인 중의 하나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고되고[23,24,27]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관련변수와의 차이 검증과 상관성에 대한 연구 정도로 진행되어져 왔다[17,20].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고자 시도되었으며, 간호사의 환자 안전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대학

생의 환자안전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 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수준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S 지역 소재 2개의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G* power analysis program 3.1.9를 이용하여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독립변수는 11개(대상자의 일반적 및 교육 관련 특성 9개, 간호전문직관, 비판적사고 성향)로 했을 때 총 152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였다. 탈락율 20%를 고려해 총 188명을 조사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16명을 제외하고 총 172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구조화된 자가 보고형 설문지로 일반적 및 교육 관련 특성,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교육관련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간호학과 지원동기, 학업성적,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환자안전

교육경험, 환자안전 캠페인 경험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2.2.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7]이 개발하고, 김명희[28]가 수정한 18문항의 도구이며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87$ 이다.

2.2.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권인수 등[29]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로 지적통합 6문항, 창의성 4문항, 도전성 6문항, 개방성 3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성 4문항, 진실추구 3문항, 팀 구성 5문항의 5점 척도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11$ 이다.

2.2.3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Madigosky 등[30]이 개발하고 박정혜 등[20]이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설문지는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765$ 이다.

2.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각 대학의 학과(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2.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철회 가능성, 자료의 익명성,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참여 동의서에 대하여 직접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았고, 동의서와는 별도로 연구 설문지를 배포, 수집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전문직관, 비

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수준은 서술적 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92.4%가 여학생, 평균나이 23.57세, 종교가 있는 학생이 43.6%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에 유리해서'가 35.5%로 가장 높았고, '가치 있는 직업이라서' 15.7% 가장 낮았다. 학업성적은 '3.00-3.49'가 41.9%로 가장 높았고, 간호학전공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대상자는 40.1%이었다. 환자안전교육은 53.5%가 경험하였으며 대상자의 61.6%는 환자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2)

Characteristics	n	%	Mean ±SD	Range
Gender				
Male	13	7.6		
Female	159	92.4		
Ages(year)				
22	28	16.3		
23	107	62.2	23.57	22-45
≥ 24	37	21.5	±2.51	
Religion				
Yes	75	43.6		
No	97	56.4		
Motivation of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	61	35.5		
Valuable	27	15.7		
Fitness	28	16.3		
Recommendation	43	25.0		
Others	13	7.5		

Academic score		
≤ 2.99	17	9.9
3.00-3.49	72	41.9
3.50-3.99	67	38.9
≥ 4.00	14	8.1
Others	2	1.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69	40.1
Somewhat	97	56.4
Not satisfied	6	3.5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57	33.1
Somewhat	99	57.6
Not satisfied	16	9.3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92	53.5
NO	80	46.5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campaign		
Yes	106	61.6
No	66	38.4
Total	172	100.0

3.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수준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76점,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40점이었고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77점 이었다<Table 2>.

<Table 2> Score of Variables (n=172)

Variables	Range	Min	Max	Mean ±SD
Nursing Professionalism	1-5	2.56	5.00	3.76±.47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5	2.37	4.46	3.40±.38
Patient Safety Attitude	1-5	2.94	4.56	3.77±.3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차이

간호전문직관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간호학과 지원 동기(F=2.68, p=.033), 전공만족도(F=12.58, p<.001), 실습만족도(F=10.69, p<.001), 환자안전교육 경험(t=2.28, p=.024) 이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가 '취업에 유리해서' 보다 높았다.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은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 보다 높았고 환자안

<Table 3> Difference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Characteristics	Item	n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atient Safety Attitude	
			Mean ±SD	t/F(p) Scheffé Test	Mean ±SD	t/F(p) Scheffé Test	Mean ±SD	t/F(p) Scheffé Test
Gender	Male	13	3.74±.50	-.13(.898)	3.63±.34	2.25(.026)	3.64±.36	-1.28(.202)
	Female	159	3.76±.47		3.38±.38		3.78±.38	
Ages (year)	22 ^a	28	3.70±.40	.93(.398)	3.37±.29	7.81(<.001)	3.71±.35	.63(.537)
	23 ^b	107	3.74±.48		3.34±.38	c>a,b	3.77±.39	
	≥24 ^c	37	3.85±.51		3.61±.37		3.82±.37	
Religion	Yes	75	3.79±.45	.75(.454)	3.41±.37	.24(.811)	3.79±.40	.43(.617)
	No	97	3.74±.49		3.40±.39		3.76±.37	
Motivation of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 ^a	61	3.63±.34	2.68(.033)	3.34±.35	4.44(.002)	3.72±.37	.75(.561)
	Valuable ^b	27	3.91±.57	c>a	3.55±.34	c>d	3.81±.35	
	Fitness ^c	28	3.92±.47		3.58±.34		3.86±.31	
	Recommendation ^d	43	3.75±.45		3.28±.35		3.78±.44	
	Others ^e	13	3.74±.72		3.36±.58		3.78±.44	
Academic score	≤2.99 ^a	17	3.83±.63	.69(.559)	3.42±.50	1.16(.328)	3.67±.37	3.30(.022)
	3.00-3.49 ^b	72	3.71±.44		3.36±.38		3.72±.38	d>a
	3.55-3.99 ^c	67	3.77±.46		3.42±.36		3.83±.35	
	≥4.0 ^d	14	3.88±.53		3.56±.39		4.00±.39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a	69	3.96±.49	12.58(<.001)	3.55±.37	9.61(<.001)	3.92±.31	9.21(<.001)
	Somewhat ^b	97	3.63±.41	a>b,c	3.30±.34	a>b	3.67±.39	a>b
	Not satisfied ^c	6	3.45±.40		3.37±.65		3.74±.4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a	57	3.97±.50	10.69(<.001)	3.50±.42	4.79(.010)	3.84±.31	1.39(.252)
	Somewhat ^b	99	3.68±.42	a>b,c	3.33±.33		3.74±.40	
	Not satisfied ^c	16	3.49±.53		3.50±.45		3.74±.47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92	3.84±.43	2.28(.024)	3.47±.37	2.39(.018)	3.74±.38	-1.12(.263)
	NO	80	3.67±.51		3.33±.38		3.81±.38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campaign	Yes	106	3.78±.47	.80(.423)	3.44±.36	1.53(.127)	3.77±.38	-.19(.851)
	NO	66	3.72±.48		3.34±.42		3.78±.39	

전교육 경험은 ‘예’가 ‘아니오’ 보다 높았다.

비판적 사고성향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별(t=2.25, p=.026), 나이(F=7.81, p<.001), 간호학과 지원동기(F=4.44, p=.002), 전공만족도(F=9.61, p<.001), 실습만족도(t=4.79, p=.010), 환자안전교육 경험(t=2.39, p=.018) 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 보다 높았고 나이는 ‘24세 이상’이 ‘22세’와 ‘23세’ 보다 높았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가 ‘주변 사람의 권유’ 보다 높았고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 보다 높았다. 실습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이 ‘보통’ 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환자안전교육 경험은 ‘예’가 ‘아니오’ 보다 높았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학업 성적(F=3.30, p=.022), 전공만족도(F=9.21, p<.001)이었다. 학업성적은 ‘4.0 이상’이 ‘3.0 미만’ 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 보다 높았다<Table 3>.

3.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성

상관성 분석결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간호전문직관(r=.351, p<.001), 비판적 사고성향(r=.271, p<.001)과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도 양의 상관(r=.479, p<.001)이 있었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72)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atient Safety Attitude
Nursing Professionalism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79 (<.001)	1	
Patient Safety Attitude	.351 (<.001)	.271 (<.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Patient Safety Attitude

(n=172)

Variables	Step 1					Step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24	.52		6.25	.000	1.96	.58		3.36	.001
Gender (R*:Male) -Female	.11	.12	.08	.93	.356	.14	.12	.10	1.19	.236
Ages (year)	.01	.01	.07	.78	.436	.00	.01	.02	.21	.832
Religion (R*:No) -Yes	.01	.02	.06	.80	.423	.02	.01	.07	1.01	.313
Motivation of admission (R*:Employment guaranteee)										
- Valuable	.10	.09	.09	1.11	.267	.03	.08	.03	.33	.743
- Fitness	.10	.08	.09	1.14	.256	.02	.08	.02	.23	.822
- Recommendation	.16	.07	.18	2.10	.037	.12	.07	.14	1.68	.094
- Others	.13	.11	.09	1.11	.271	.05	.11	.03	.44	.657
Academic Score (1=3.0 Less than, 4=4.0 or higer)	.09	.04	.20	2.42	.017	.09	.04	.18	2.31	.02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1=Not satisfied, 3=Satisfied)	.16	.07	.23	2.45	.015	.11	.06	.16	1.69	.09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1=Not satisfied,3=Satisfied)	.02	.06	.03	.37	.711	.02	.06	.04	.43	.665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R*:N0) - Yes	-.11	.06	-.15	-1.87	.064	-.14	.06	-.19	-2.49	.014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campaign (R*:N0) - Yes	.03	.06	.04	.53	.597	.02	.06	.03	-.34	.737
Nursing Professionalism						.21	.07	.26	3.00	.00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4	.08	.14	1.64	.103
R ²				.155				.246		
Adjusted-R ²				.091				.178		
F(p)				2.41(.007)				3.61(<.001)		

Durbin-Watson=2.150, Toleracne: .57~.94, VIF=1.06~1.76

R*: Reference group

3.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에는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종교, 간호학과 지원동기, 학업성적, 전공만족, 실습만족, 환자안전교육경험, 환자안전캠페인경험 등 일반적 특성 9개를 투입하였으며, 모형2에는 추가로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투입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2.105로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차항의 분포는 표준화 잔차가 ±3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574~.94로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6~1.76로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최종 회귀 모형은 적합하였고 모형 1에 투입된 일반적 특성에서는 간호학과 지원동기의 '주변권유'(β=.18, p=.037)와 학업성적

(β=.20, p=.017), 전공만족(β=.23, p=.015)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 하였을 때 간호전문직관(β=.26, p=.003)은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판적 사고성향(β=.14, p=.103)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들 변수의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17.8% 이었다(Adjusted-R²=.178, F=2.41, p<.001)<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76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현주[31]의 3.48점보다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환자안전교육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9,32], 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9,33]를 고려할 때, 외부요인이 아닌 자신의 적성에 맞춰서 학과를 지원한 경우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환자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안전교육 경험과 간호전문직관을 함께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안전관리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11]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교육 경험과 간호전문직관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40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에게 조사한 3.41점[34]과 유사하나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의 3.56점[35]보다 낮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실무환경 속에서 매 순간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요구되어지는 간호사들과는 다르게 간호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기회가 적음으로서 간호사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취업 전 적용한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킨 연구[36] 결과를 볼 때, 신입간호사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 근무 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남학생인 경우, 나이가 24세 이상인 경우, 적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 지원한 경우,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가 높은 경우, 환자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연령, 간호학 전공만족도, 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37] 같은 결과이다. 또한 성별이 남학생이며, 간호학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와 임상실습에 대하여 만족하는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고, 이는 학업성적과는 무관하다는 신경아 등[3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간호학의 지원동기가 적성이나 가치를 염두에 두는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고려할 때[38] 전공만족도와 실습 만족도가 비판적 사고 함양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환자안전교육 경험이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환자안전

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과 판단력이 요구되므로[15] 다양한 상황에서 정확한 평가나 판단이 요구되는 비판적사고 능력[12]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77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연구[20]에서 나타난 임상실습 후의 간호대학생의 태도 점수가 3.77점인 결과와 같고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09점 보다 높다. 본 연구의 결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적,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결과[20]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로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가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환자안전교육 경험은 환자안전 태도 요인을 포함한 환자안전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15,21,22]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는 환자안전교육 경험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병원 환경은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실시간 주의를 요하는 반면 학생들의 환경은 그렇지 않으므로 병원에서의 근무경험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15,18]. 더불어 선행연구에서[30] 의과대학교 2학년들의 교과과정에 환자안전의 내용을 삽입하여 교육한 결과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환자안전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규교육과정을 통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전공과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이 향상 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환자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환자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환자안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므로[17,20] 적절한 교육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비판적 사고성향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32] 간호사들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고

[11],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높다[18]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취업에 유리해서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주변의 권유로 지원하는 경우와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전공에 대하여 만족한 경우가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 하였을 때는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경우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가 뚜렷하게 높았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학과 지원 동기 중 단순히 취업을 위하여 선택하는 경우보다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학과선택에 대한 접근이 더욱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신중한 동기가 전문개념이 반영된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원동기에 대한 연구는 더욱 구체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19,20]는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이러한 변수가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 안전관리를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직접 비교 연구 한 선행연구는 미진하므로 환자안전의 태도를 포함한 유사 개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수인계 상황에서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환자 인수인계 상황에서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이었다[39]. 또한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환자의 모니터링 실무를 통한 환자의 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며[25],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문화인식이 높음이 보고되었다[11]. 환자 안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환자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로부터 나온다는 것[20]을 고려할 때, 간호전문직관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임상실습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추후 간호업무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보다 안전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고 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과는 다르게 비판적사고 성향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14]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18]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환자 안전의 태도의 관계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연구에서 병원 경력 5년 이상 간호사가 1년 이하 간호사보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환자 안전관리 활동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환자 안전관리 활동은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 이러한 결과로 간호사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안전관리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변수 중 하나는 병원 경력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의 태도에 미진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가 간호대학생들의 병원 경력이 없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환자안전에 관한 태도는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영향 요인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병원현장의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하여서는 모든 간호사에게 있어서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변수를 찾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환자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의료 질 보장을 위하여 병원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이 갖춰야할 요소이므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자안전 보장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 의료 상황에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환자안전보장에 대한 병원현장의 높은 요구도로부터 유발되는 현실충격을 줄이고, 현장의 요구에 맞는 자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 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수준은 중간정도 이었다.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반적 특성에서는 간호학과 지원동기의 '주변권유'와 학업성적, 전공만족이며 일반적 특성을 통제 하였을 때 간호전문직관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7.8% 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기간 동안 접하게 되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학과지원동기, 학업 성적 및 전공 만족도 및 간호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 더욱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높은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eongam College research grants in 2017.

REFERENCES

[1] H. K. Yum, I. S. Hwang, "Korean Healthcare Accreditation Perspect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Quality Assurance in Health Care*, Vol. 18, No. 1, pp. 1-14, 2012.

[2] J. Yoo, J. Lee, "Complex impact of Patient Safety and Medical Quality on Hospital Management Activities due to Healthcare Accreditation Adop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7, pp. 283-292, 2015.
<https://doi.org/10.14400/JDC.2015.13.7.283>

[3] M. R. Kim, "Concept analysis of patient safe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1, No. 1, pp. 1-8, 2011.
<https://doi.org/10.4040/jkan.2011.41.1.1>

[4] A. A. Abbott, K. T. Fuji, K. A. Galt, K. A. Paschal, "How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value an interprofessional patient safety course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Scholarly Research Network Nursing*, 2012.
<https://doi.org/10.5402/2012/401358>

[5] F. Milligan, S. Dennis. "Improving patient safety and incident reporting", *Nursing Standard*, Vol. 19, No. 7, pp. 33-36, 2004.
<https://doi.org/10.7748/ns2004.10.19.7.33.c3733>

[6] M. Vaismoradi, M. Salsali, P. Marck, "Patient safety :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and the role of nursing education to provide safe car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 58, No. 4, pp. 434-442, 2011.
<https://doi.org/10.1111/j.1466-7657.2011.00882.x>

[7] E. J. Yeun, Y. Kwon, O.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8] M. Rassin, "Nurses' professional and personal values", *Nursing Ethics*, Vol. 15, No. 5, pp. 614-630, 2008. <https://doi.org/10.1177/0969733008092870>

[9] Y. Ham, H. Kim,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3, pp. 363-373, 2012.
<https://doi.org/10.7739/jkafn.2012.19.3.363>

[10] Y. Kim, K. Park, "Nurses' Awareness on Healthcare Accreditation, Work Overload,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Influencing Activities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among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6, pp. 3377-3392, 2014.

[11] N. Kim,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organizational empowerment and patient safety culture in ICU

- nurs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5.
- [12] S. M. Rogal, J. Young, “Exploring critical thinking in critical care nursing education : A pilot study”,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Vol. 39, No. 1, pp. 28-33, 2008.
<https://doi.org/10.3928/00220124-20080101-08>
- [13] S. Park, G. I. Kwon, “Factors Influencing Nurses’ Clinical Decision Making : Focus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7 No. 6, pp. 863-871, 2007.
<https://doi.org/10.4040/jkan.2007.37.6.863>
- [14] H. Kim, S. Han, “The Survey on the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solving Skill and Self-efficacy on Patients Safety Competenc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6, pp. 598-608, 2016.
<https://doi.org/10.5762/kais.2016.17.6.598>
- [15] S. H. Yoo,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of one tertiary hospital nurse on the patient safety competenc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6.
- [16] L. J. Fero, C. M. Witsberger, S. W. Wesmiller, T. G. Zullo, L. A. Hoffman. “Critical thinking ability of new graduate and experienced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5, No. 1, pp. 139-148, 2009.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8.04834.x>
- [17] Y. Hye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Attitude of Patient Safety, and Safety Care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5.
- [18] C. H. Chang, “An Exploratory Study on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2017.
- [19] H. Jeong, J. Kong, M. Jeon,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6, pp. 121-130,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6.121>
- [20] J. Park, M. Park, “Knowledge, Attitude, and Confidence on Patient Safety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1, pp. 5-14, 2014.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5>
- [21] Y. Kim, M. Lee, E. Chin, “Convergence Effects of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ontrol on Safety Performance in General Hos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201-211, 2016.
<https://doi.org/10.14400/jdc.2016.14.7.201>
- [22] Y. Seo, E. Do, “Influence of Safety Culture Perception, Safe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s Perceived for Nurses in Nursing Hom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303-311, 2015.
<https://doi.org/10.14400/jdc.2015.13.9.303>
- [23] E. Song, Y. Park, H. Ji, H. Lee, “Factor Affecting on the Clinical Nursing’s Safety Nursing Activ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1, pp. 469-479, 2016.
<https://doi.org/10.14400/jdc.2016.14.11.469>
- [24] M. Nam, J. Lim, “The Influences of the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Care Activities among Nurse in small-medium Sized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 pp. 349-359, 2013.
- [25] G. Bunkenborg, K. Samuelson, J. Akeson, I. Poulsen, “Impact of professionalism in nursing on in-hospital bedside monitor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9, No. 7, pp. 1466-1477, 2012. <https://doi.org/10.1111/jan.12003>
- [26] H. J. Kim, N. C. Kim, “The status of blood and body fluid exposure and affecting factors among nursing students including knowledge, performance regarding standard precaution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 15, No. 3, pp. 17-30, 2014.
- [27] R. L. Wears, B. Janiak, J. C. Moorhead, A. L. Kellermann, C. S. Yeh, M. M. Rice, G. Jay, S. J. Perry, R. Woolard, “Human error in medicine:

- promise and pitfalls, part 1”,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Vol. 36, No. 1, pp. 58–60, 2000.
<https://doi.org/10.1067/mem.2000.em36158>
- [28] S. Han, M. Kim, E. Yung,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73–79, 2008.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 [29] I. S. Kwon, G. E. Lee, G. D. Kim, Y. H. Kim, K. M. Park, H. S. Park, S. K. Sohn, W. S. Lee, K. S. Jang, B. Y. Chung,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6, No.6, pp. 950–958, 2006.
<https://doi.org/10.4040/jkan.2006.36.6.950>
- [30] W. S. Madigosky, L. A. Headrick, K. Nelson, K. R. Cox, T. Anderson, “Changing and Sustaining Medical Students’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about Patient Safety and Medical Fallibility”, *Academic Medicine*, Vol. 81, No. 1, pp. 94–101, 2006.
<https://doi.org/10.1097/00001888-200601000-00022>
- [31] H. 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27>
- [32] K. Shin, B. Cho,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1, pp. 46–56, 2012.
<https://doi.org/10.7739/jkafn.2012.19.1.046>
- [33] E. Lee, M. Park,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 pp. 311–320, 2017.
<https://doi.org/10.14400/jdc.2017.15.1.311>
- [34] J. Park, J. Ho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s Basic Nursing Skill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6, No. 1, pp. 342–351, 2016.
<https://doi.org/10.5392/jkca.2016.16.01.342>
- [35] H. J. Hna, “Effects of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erceived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Perception of Shared Medical Decision Making for Clinical Nurs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6.
- [36] J. H. Park, M. H. Lee, “Effects of a practical work-oriented education program on the ability of newly recruited nurses in execution of clinical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and turnover rat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7, pp. 191–199, 2017.
<https://doi.org/10.14400/jdc.2017.15.7.191>
- [37] I. Park, R.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7, No. 4, pp. 105–117, 2013.
<https://doi.org/10.12811/kshsm.2013.7.4.105>
- [38]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 [39] I. M. D. Siemsen, M. D. Madsen, L. F. Pedersen, L. Michaelsen, A. V. Pedersen, H. B. Andersen, D. stergaard, “Factors that impact on the safety of patient handovers: an interview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40, No. 5, pp. 439–448, 2012.
<https://doi.org/10.1177/1403494812453889>

박 미 화(Park, Mi Hwa)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환자 안전, 간호관리, 노인간호

· E-Mail : diamon86@hanmail.net